

##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출간지원 】 심의평

[시] 전반적으로 시집 한 권을 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응모자들이 많았다. 작품을 읽는 순간들은 즐거웠으나 지원의 폭이 좁아 무척 아쉬웠다. 좀 더 확장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배정된 지원액에 맞추어 선정할 수밖에 없어 우수한 작품을 낸 응모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소설] 올해 출간지원에 응모한 소설은 단편보다 중·장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목장, 교권 추락 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연성 있게 묘사한 작품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시나리오의 트리트먼트를 연상시키는 응모작, 서술은 없고 불필요한 대화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응모작을 골라내고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준 작품,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중요성을 설파한 작품 등을 추려 선정했다. 소설은 구성에서 시작하고 구성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잘 이끌어가다 후반에서 무너지는 장편이 많아 아쉬웠다.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경우 동화, 동시, 그림책, 청소년 소설 등 장르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해 읽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의 경우 소재와 상상력이 너무 익숙한 작품, 단지 아이들의 일상을 노래한 것에 머문 작품들이 많아 아쉬웠다. 동시도 시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의 경우 서사 전개 방식이 상투적이거나, 결말이 작위적이거나, 계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판타지 세계가 너무 뻔하게 그려지는 작품들은 논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도록, 언어와 상상력, 캐릭터,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수필·평론·희곡] 수필·평론·희곡의 경우 일상에 대한 평이한 시선을 드러내는 글쓰기보다는 나와 타자를 이해하려 하고,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유와 문체의 힘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선정하고자 했다. 평론 부문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희곡은 작품성을 중심으로 심의에 임했고, 무대에 상연(上演)했을 때 관객들과의 소통과 대화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

2024.2.20.

심의위원	강형철	시인
	이현수	소설가
	박혜숙	동화작가
	고영직	문학평론가